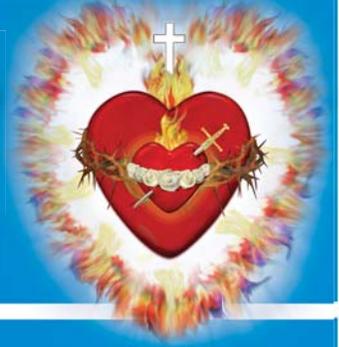




거룩한 사랑

알리는 뉴스레터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공식 간행물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와 성지
 “어떤 진리도 거룩한 사랑을 반대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선교회와 성지입니다. 이 에큐메니컬 선교사업 그리고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 통해서 천국이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을 통해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도록 부르십니다.

거룩한 사랑은 즉, 사랑의 두 가지 위대한 계명 -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아버지 하느님의 뜻, 복음 메시지의 실현, 그리고 십계명의 구현입니다.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은 모린 스위니-카일(Maureen Sweeney-Kyle), 목격증인을 통해서 주어집니다. 선경지명(visions), 발현, 메시지들은 1985년에 시작했습니다. 그 때 이후로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 그리고 많은 성인들이 거의 매일 모린(Maureen)에게 발현하고 계십니다. 이 메시지들은 사랑 안에서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지향하는 에큐메니컬 (공동 기도) 노력으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메시지들 중에서 인용된 다음 인용문들에 선교사업의 목적과 초점이 명확히 진술됩니다.

“이 선교사업의 영향은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하도록 즉, 거룩한 사랑의 메시지들을 통해서 마음이 회개하도록 하고, 수많은 초자연적 은총이 충만하게 이곳에서 입증되도록 하는 것이다. 현재의 이 시대에 이곳의 선교사업은 모든 세대와 나라와 이데올로기의 회개를 가져오는 것이다.”

(고통의 성모님 - 2011년 9월 15일 / 자정 기도모임)

“이 선교회의 (기도의) 성지와 메시지들은 모든 사람들이 영감과 은총, 평화를 함께 나눌 수 있는 원천으로 남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이곳에 와서 그렇게 하도록 부름을 받고 있습니다. 이 애정 어린 초대에 복종하십시오.”

(시에나의 카타리나 성녀- 2012년 1월 20일)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 거룩하신 예수성심 성상(聖像)

THE ROSARY OF THE UNBORN

YOU CAN
HAVE IN
YOUR HANDS
THE POWER
TO CHANGE
THE WORLD.

Join the thousands of people praying the miraculous Rosary of the Unborn to bring an end to abortion for all time. Visit our website to find out more about what makes this particular Rosary so SPECIAL.



www.RosaryOfTheUnborn.com

Large Rosary - \$24.95 plus S&H
Small - \$9.95 plus S&H
To order, call 440-327-4532
Archangel Gabriel Enterprises Inc.
37137 Butternut Ridge Rd.
North Ridgeville OH 44039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



사진은 하느님의 자비심 주일 오후 3시에 하나 되신 성심의 별판 성지에서
기도모임에서 찍음 - 2013년 4월 7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가 묵주기도를 바칠 때 너희는 세상에서 사탄의 공격을 물리칠 수 있는 힘을 너희 손에 쥐고 있는 것이다. 묵주기도에 의해 너희는 사탄이 세상의 마음에 드리운 속임수의 베일을 걷도록 나를 도울 수 있다. 묵주기도에 의해 너희는 나로 하여금 하느님께서 진리에 대한 인류의 배신 때문에 보류하셨을 많은 은총들을 세상에 미치게 한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묵주기도의 힘을 알지 못하지만 실은 어떤 지도자나 정부, 평화 협정이나 경제 해결책도 이 기도 of 강력한 힘에 견줄 수 없다. 원수는 이 사실을 너희에게서 숨긴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그자의 비밀의 어둠에 맞서는 진리의 빛이다. 너희의 노력이 헛되다고 믿도록 잘못 이끌리지 마라. 참으로 너희가 바치는 묵주기도는 승리다.”

(복되신 어머니 - 2012년 8월 31일) ■

천상의 자애로

“오늘 나는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이 이곳
발현 성지에서 나를 만나기를 요청한다. 나는 소심하여 적극성이 없는
사람과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 오만한 사람과 겸손한 사람, 가장 음란한
죄를 지은 사람과 개인의 성덕(聖德 Sanctity)에 가까워진 사람 들 모두를
초대한다. 나는 아무것도 숨기지 않는다. 나는 오는 이들 모두에게 양심
조명의 은총과 회개의 은총을 준다. 내가 주는 것을 받아들일지 혹은
거절할지는 여기에서 나를 만나는 모든 마음의 선택이다.”

“모든 이가 이곳으로 부름을 받는다. 나는 내가 제공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과 믿지 않는사람들 모두를 환영한다. 이 초대는 의심을 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나의 도전이 되고, 믿는 사람들에게는 내 신성한 사랑의
연속이다. 내 초대를 받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

예수님 - 2013년 7월 21일

운 초대...

“나는 여기 이 성지에서 세상에 내 성심을 드러낸다.”

예수님 - 2013년 2월 10일



...마라나타 샘과 성지-



기록한 사랑

“이 천상의 초대는 너희가 성지에 발을 들여놓으면서 너희가 숨을 쉬는 바로 그 공기 안에 존재한다.”

예수님 - 2013년 2월 10일



...마라나타 샘과 성지

“너희는 이곳 성지에서 너희에 대한 내 사랑의 깊이와 내 어머니 성심의 동정심을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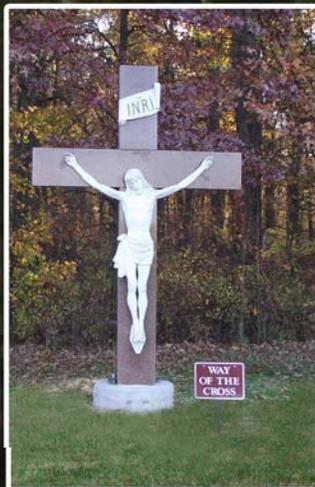
예수님 - 2013년 2월 10일



기록한 사랑



- SHRINES**
- ◆ MARANATHA SPRING
 - ◆ UNITED HEARTS
 - ◆ ST. JOSEPH
 - ◆ ST. PADRE PIO
 - ◆ WAY of the CROSS
 - ◆ ST. MICHAEL



...마라나타 샘과 성지-

“이 성지에 와서 천상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 진리로 강력해져라.”

복되신 어머니 - 2005년 10월 9일



기록한 사랑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 2013년 6월 9일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2013년 6월 9일

(이 메시지는 여러 부분으로 나누어 주셨습니다.)

예수님과 복되신 어머니께서 그분들의 성심을 드러내시고 여기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인류의 죄로 인해 몹시 상처를 입어 온,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이들에 대한 대단한 열정이 아직 남아있는 내 성심을 바라보아라.”

“사회적 평등은 부의 재분배가 아니라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일치로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부의 재분배는 계획이 아니라 음모다. 내가 너희에게 진실로 말한다. 사회 공정은 단일 세계 질서의 징조다. 일치는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만 이루어질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인류는 그가 오직 자기 자신이나 다른 이들, 외면적인 가치에만 신뢰를 둘 때 가장 불안정하다. 평화와 안전이 성실하다는 것은 오직 나와 내 아버지의 뜻을 신뢰하는 데 있다. 세상은 인간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평화를 찾지 못할 것이다. 참평화는 하느님의 통치를 마음속에, 그리고 나서 세상에 놓이게 함으로써 너희에게 온다. 오늘날 도전은 하느님께 마음과 세상의 왕으로서 그분께서 마땅히 차지하셔야 할 자리를 회복시켜 드리는 것이다.”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세계의 모든 지도자들을 위한 너희의 기도와 희생이 필요하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진리에 근거하지 않은 결합이 형성될 때 이것은 사탄의 거짓말에 근거한 일치다. 오늘날의 중요한 연합들이 이런 경우다. 세상의 미래가 이처럼 소수의 사람들의 손에 달린 경우는 일찍이 없었다. 이것은 진보된 (과학)기술의 나쁜 열매다.”

“인류의 생명 존중의 결핍과 인간의 품위에 대한 무관심이 인류를 몰락에 이르게 한다. 서로의 복지를 염려하는 관심이 탐욕스러운 불평으로 급속히 바뀌고 있다.”

“그러나 내 형제자매들아, 나는 너희를 진리의 빛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이곳에 왔다. 진리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인식 없이는 세상이 존속할 수 없다. 내가 너희에게 자기 중심적인 관심에서 벗어나 세계적인 관심에 즉, 자기 만족을 넘어 너희의 창조주를 기쁘게 해 드리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만일 너희가 하느님과 아무런 관계도 맺고 있지 않거나, 최대한 좋게 보아서 그 관계에 금이 간 관계라면, 너희는 너희의 미래 뿐만 아니라 세상의 미래를 위험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너희는 진리 안에서 살고 있지 않는 것이다. 나는 진리 곧, 거룩한 사랑을 너희에게 주기 위해 왔다. 거룩한 사랑으로 살지 않는 사람의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 주위 세상은 더욱더 위험해진다.”

“이것이 너희에게 범죄와 온갖 종류의 타협된 가치에 굽히는 급진주의와 낙태, 중독이 있는 이유다.”

“너희가 거룩한 사랑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사랑으로 사는 것을 거부하면 악에 힘을 실어주게 된다. 너희는 이제 승인을 기다릴 시간이 없으며, 그렇게 하는 것은 심각한 결과를 가져온다. 거룩한 사랑을 선택함으로써 악을 피하고 선을 선택하여라.”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진리의 실재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 너희는 마음속에 숨겨져 온 것으로 많은 것이 큰 영향을 주는 것을 목격할 것이다. 너희는 선의 길과 악의 길을 더 분명히 알아볼 것이다. 너희는 가장 쉬운 길이나 많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선택해서는 안 된다. 이 선교사업이 그것을 증명한다. 너희는 많은 어려움에 직면하여 진리를 증언할 용기를 위해 기도해야 한다. 너희는 진리의 사도직이 너희에게 내려주는 은총으로 낙심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 너희는 너희를 위한 나의 아버지의 뜻을 분명하게 볼 것이다. 그분의 뜻은 너희의 구원이다.”

“지위나 권력, 권위가 모든 행위나 행동의 결여를 정당화한다고 믿는 것은 잘못이다. 많은 영혼이 이러한 억측으로 잘못 들어서거나 길을 잃기까지 한다. 거룩한 사랑에 근거하여 진리를 찾아내고 그 안에서 일치하여라. 진리는 너희의 믿음과 희망과 사랑을 지지한다. 또다시 이 선교사업이 내가 말하는 것을 증명한다.”

“오늘 우리는 또다시 너희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피신처 안으로, 잠깐멈춤의 평화로, 하느님의 신성한 뜻의 은신처로 초대하고 있다. 우리는 너희가 확신을 갖고 너희가 진리를 믿고, 진리 안에서 일치하는 은총을 받을 이 피신처로 오기를 바라고 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는 너희가 가지고 있는 성물위에 우리의 축복을 보내고 있으며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너희에게 내리고 있다.” ■



천상은 세상에 새로운 신심을 주신다... 비통하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혼들과 진리보다는 오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고귀한 성심에 입히는 상처를 낫게한다”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7월 17일

비통하신 예수 성심



비통하신 예수 성심에 대한 주석 (註釋) -

관계자 제위

비통한 예수 성심의 성화를 그리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제가 그림을 여실하게 복제한다는 것은 인간으로써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성화는 저의 빈약한 시도이지만 최선의 시도입니다.

성심은 부드러운 자주색, 거의 회색입니다. 성혈은 암홍색으로 가시에도 또한 나타납니다. 불꽃과 십자가는 충분히 근접해 있다고 생각합니다.

M. 카일(Kyle)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비통한 예수 성심께 바치는 기도

“비통한 예수 성심이시여, 각 영혼이 매 현 순간 그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도와주소서. 영혼이 어떻게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 성심을 슬프게 하는지를 각 영혼에게 보여 주소서. 비통한 당신의 성심을 더이상 슬프게 하지 않도록 각 영혼을 진리의 빛 안으로 데려가 주소서. 아멘.”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7월 17일)

비통한 성심께 바치는 봉헌 기도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비통하신 당신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바라옵니다. 주님께서는 매 현 순간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 때문에 파멸로 빠지는 영혼들을 보시나이다.”

“제가 매일 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비통하신 당신의 성심의 가시들과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주소서. 부디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어떤 지위에서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소서. 아멘.”

(예수님 - 2013년 7월 26일)

비통한 성심의 화살기도

(하루종일 틈틈이 바칠 기도)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저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예수님 - 2013년 8월 1일)

비통한 성심의 중재기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당신 아드님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저의 신심을 헤아리시어 이 청원을 들어주소서: _____.”

(복되신 어머니 - 2013년 8월 4일)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에 약속

1.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어떤 반대에도 불구하고 진리를 지지할 수 있는 용기가 주어질 것이다.”
2.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권한 남용에 의한 박해를 받을 때 의로움 안에서 인내의 은총이 주어질 것이다.”
3.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을 지닌 이들에게는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을 통해 놀라운 은혜가 주어질 것이다. 어머니께서는 당신의 아드님을 위로해 드리기 위해 노력하는 이들에게 매우 고맙게 생각하시기 때문이다.”

(예수님 - 2013년 8월 1일)

2013년 7월 1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너희가 내 성심의 슬픔을 이해하도록 돕기 위해 왔다. 내 어머니의 성심은 슬퍼하고 계신다. 내 성심도 슬퍼하고 있다. 나는 태중 생명의 죽음을 슬퍼한다. 마음속에서 거룩한 사랑의 상실을 슬퍼한다. 나는 (사람들이) 진리를 추구하지 않음을 슬퍼한다.”

“나는, 사탄의 거짓말을 믿고 또 이런 오류를 바탕으로 그들의 의견과 생활방식을 만들어 내기 때문에 멸망의 길로 빠져드는 영혼들을 슬퍼한다. 나는 사탄이나 지옥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슬퍼한다. 이것은 마음속에서 사탄의 그릇된 승리다.”

“그렇다, 내 성심의 슬픔은 인간이 이해할 수 없다. 나는 세상의 마음을 바로잡고 싶은 생각이 간절하다. 나는 용서하지 못함에 의해서 부서진 마음들을 수습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이 선교사업 안에서 그리고 이 선교사업을 통해서 승리를 거두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진리 안에서 마음의 가책(양심 조명)을 그리고 이곳 선교사업에 대한 모든 반대가 돌아켜지기를 간절히 바란다. 나는 모든 지도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양떼를 온화하게 이끌며 권력과 돈에 대한 무질서한 욕심을 포기하고 오직 다른 이들의 복지만을 추구하는 충실한 목자들이 되기를 바란다. 오늘날 세상에서 이런 지도자들을 찾기는 어렵다.”

“나는 이 모든 것에서 너희의 위로를 찾는다. 그 보답으로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이다. 나의 의로운 신자들은 믿지 않는 이들에 의해서 크게 고통을 겪고 있다. 내가 너희의 위로가 되게 하여라. ■

2013년 7월 17일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찬미 예수님.”

“나는 세상에 알려야 할 또 하나의 신심을 너희에게 맡긴다. 이것은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이다. 내 칭호인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는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께 위로가 되고 있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대한 신심은 악에 맞서는 영적인 해결책이며 거룩한 심방들을 거쳐가는 여정은 하늘의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비통한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은 그들 자신의 구원을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는 영혼들과 진리보다는 오류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분의 고귀한 성심에 입히는 상처를 낫게한다. 예수님께서서는 다가오는 그분의 정의를 완화시키기를 원하시지만 너희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분의 비통한 성심에 대한 깊은 신심은 정의의 팔을 멈추게 하고

임박한 재앙을 약화시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이 기도를 부디 알려라.”

“비통하신 예수 성심이시여, 각 영혼이 매 현 순간 그의 구원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알아보도록 도와주소서. 영혼이 어떻게 당신에게서 멀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당신 성심을 슬프게 하는지를 각 영혼에게 보여 주소서. 비통한 당신의 성심을 더이상 슬프게 하지 않도록 각 영혼을 진리의 빛 안으로 데려가 주소서. 아멘.” ■

2013년 7월 1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비통에 잠긴 내 성심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은 죄로 이끄는, 진리에 대한 온갖 종류의 타협을 상징한다. 비통한 내 성심의 상처는 많은 사람들을 파멸로 이끄는 직권 남용에 의해 생긴다.” ■

2013년 7월 1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지금 비통한 내 성심을 보이면서 너희에게 다시 한 번 왔다. 내 성심은 권한의 남용과 진리의 타협 때문에 영혼을 잃는 사람들을 늘 비통해 하고 있다. 이 두 가지는 죄를 조장한다. 권한의 남용은 많은 경우에 배교의 결과를 가져오고 있다. 진리의 타협은 모든 죄의 근거다. 이것들은 내가 지상을 거닐었을 때 겪었던 것과 같은 상처들이지만 오늘날 그 상처들은 더욱 두드러지고 더욱 공개적으로 분명하게 드러난다.”

“권한의 남용과 진리의 타협은 모든 전쟁, 종교계에서 받는 모든 형태의 박해의 원인이 되며 심지어 필요할 때 개입하는 천상의 정의까지도 거부한다. 기도는 종종 공공연하게 방해된다. 자유는 때때로 자유의 이름으로 제거되고 거부된다.”

“왜 내가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한 이 신심을 요청하면서 지금 이 시대에 너희에게 오는가? 내가 그렇게 하는 것은 나는 더 이상 조심스럽게 말을 하거나 지나친 자부심을 어루만져 줄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더 이상 내게 상처를 입히는 사람들을 정중하게 보호할 수 없다.”

“이 세상에서 시간의 흐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오류를 주의하지 않는다. 나는 이제 인류가 그의 하느님께 보속하지 않고 비통한 내 성심을 진정시키지 않을 때 앞에 가로놓일 것의 심각성을 밝히기 위해 왔다. 죄와 사탄과 지옥은 참으로 존재한다. 사실은 당국이 매 순간 일어나고 있는 영적 전쟁을 인정해야 한다. 사실은 개인의 거룩함을 장려하지 않으면 영적으로 허약 해진다. 사탄은 너희가 허약할 때 더 강해진다.”

“큰 전쟁은 적을 알지 못하는 데서 초래되는 유일한 결과일 수 있다. 너희는 기도와 희생으로 비통한 내 성심을 진정시킴으로써 이 일을 완화시킬 수 있다. 즉시 시작하여라.” ■

2013년 7월 22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지극히 비통한 나의 성심을 드러내며 또다시 너희에게 왔다. 나는 진리에 대해서 그리고 진리의 적대인 거짓에 대해서 말하기 위해 자주 너희에게 오고 있다. 오늘은 권한의 남용에 대해 말하고 싶다. 이것은 단지 자존심이 예민하고, 잘못을 고쳐 바로잡음에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도 민감한 주제다. 지도자들은 그들 자신의 마음속을 들여다보기 보다는 오히려 이 발현들과 여기에서 주어지는 모든 은총을 무시할 수 있다.”

“그러나 너희의 예수인 나는 충분히 오랫동안 침묵을 지켜 왔다. 세속의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기 위한 준비가 되어 있다. 사리 사욕이 그들의 동기가 될 때 지도력은 혼란에 빠지고 부패한다. 이 부패의 은폐 공작은 부패 자체보다 더 나쁘다. 나는 지금 소아 성애자 (소아 대상의 성도착자) 스캔들 (추문)과 그것에 잇따라 일어나는 은폐 공작에 주의를 불러일으킨다. 무능한 지도력은 양떼를 흩어지게 한다. 이 선교사업 전체의 목표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거룩한 사랑을 통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의 일치였다. 그러나 이 선교사업은 거짓 때문에 그리고 지도력의 남용으로 크게 고통을 느끼고 있다.”

“이 (권위의) 칼이 내 성심을 꿰뚫는다는 것과, 내가 비통한 내 성심을 세상에 드러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이상한 일이나”

“정부 전체가 권력의 남용과 숨은 의도로 인해 잘못 인도되고 있다. 선행(善行)들이 방해되고 있다. 문제들의 해결은 불필요하다고 간주되고 있다. 사람들은 착취되고 학대 받고 있다.”

“나는 이젠 말없이 지켜볼 수가 없다. 너희에게 울부짖는 비통한 내 성심을 가라앉히게 하여라. 우리는 함께 교만에 찬 지배권을 두려워하지 말고 진리를 말해야 한다.” ■

2013년 7월 22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 두 고통이 어떻게 비통한 내 성심 안에서 동시에 생기고 또 어떻게 서로 대립(반목)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권한(권력)남용의 바탕은 분명히 진리의 타협이다. 이 남용과 그것의 지지에는 순종 이행에 대한 혼란된 습관이 있다. 순명 서원 또한 지배하기 위해 자주 이용되기는 하지만, 나는 지금 순명 서원을 맹세한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나는 목자에게 돌보라고 맡겨진 양들에 대해 말하고 있다. 얼마나 자주 순종이 선의 옷을 입고 오지만 자기 잇속만 차리는 숨은 계획을 조장하는지.”

“너희는 지금 말한 것의 대부분이 어떻게 이 발현 성지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 것임에 틀림없다. 사람들이 기도하기 위해 이곳에 오는 것을 단념시키는 것이 어떻게 좋을 수 있느냐”

“지도력은 그 자체가 완벽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지도력은

기꺼이 귀를 기울이고 좋은 일은 장려하며 그들 자신의 의지가 아니라 하느님의 뜻을 이룩하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 내가 왜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의 계시를 이 발현 성지를 위해 보류했는지 알겠느냐? 지금 말 한 것이 여기에서 나를 반대해 온 것 즉, 진리의 타협과 권한(직권)남용이다.” ■

2013년 7월 2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비통한 내 성심에 대해 다시 한 번 말하겠다. 나는 내 성심의 고통을 알릴 수 있는 순간을 오랫동안 기다려 왔다. 이 상처들은 세상 모든 문제의 핵심이다. 왜냐하면 비통한 내 성심을 둘러싸고 있는 가시들을 이루는 진리의 타협이 모든 죄의 근본이기 때문이다. 비통한 내 성심의 상처인 권한 남용은 많은 사람을 지옥 (파멸)에 떨어지게 하고 있다.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은 둘 다 거룩한 사랑을 거스른다. 이것들은 둘 다 여기에서의 내 선교사업을 직접 반대하고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들의 자존심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주지 않기 위해 조심하였다. 나는 더 이상 그렇게 할 수 없다. 거룩한 사랑은 절대로 지배력이나 권력, 혹은 영역을 지키기에 애쓰는 경계심에 관계하지 않는다. 거룩한 사랑은 영혼의 구원에 관계한다. 오늘날 내가 모든 이에게 요구하는 것은 말다툼을 멈추고, 이 노력 안에서 일치하라는 것이다. 거짓과 고의적인 위장(가장)은 틀림없이 너희 구원의 적이다. 이 세상에서 중요한 신분은 자신에게 중요성을 부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에 평화와 구원을 가져오기 위해 너희에게 주어진다.”

“너희가 너희 자신의 구원과 다른 사람들의 구원을 향해 노력하지 않는다면 너희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대항하는 것이다. 너희는 비통한 내 성심 안으로 고통을 가져오는 것이다.”

“내 염려(관심)는 잘못하여 도달한 명성이나 빈틈 없는 결정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진리의 빛을 그리고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에게 일치를 가져오는 것이다. 내 성심 안에는 나와 함께 이 목표를 추구하지만 선의 옷을 입은 사람들에게 의해 반대를 받고 있는 의로운 사람들의 고통이 새겨져 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기도하여라.” ■

2013년 7월 23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이제 이 선교회에 대한 공식적인 지지를 기다릴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직접적이고 의미심장하게 말하고 있는 것이다. 나는 자존심에 대해서 조심하거나 오만한 권위(자)를 보호할 시간이 없다. 이 세상의 미래와 수백만의 영혼들이 위태로워진다.”

“가장 많이 반대하는 이들이 교정이 필요한 바로 그 사람들이다.” ■

2013년 7월 2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누구를 이끌든지 모든 지도자들은 그들이 내리는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쉽게 한계를 넘어 오류에 빠진다. 진리가 그들의 책임의 근거가 되어야 한다. 만약 지도자들이 거짓말과 애매함으로 그들의 결정을 꾸민다면 그들의 재임 기간은 혼란과 속임수의 시대가 될 것이며 그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결정이 흠 잡을 데 없다고 생각하거나 혹은 그들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결국, 마지막 심판자는 나이며 내가 모든 것을 거룩한 사랑의 저울에 달 것이다.”

“그러나 오늘 나는 진실로 책임에 대해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왜냐하면 아무도 그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많은 지도력이 남용되어 왔기 때문이다. 많은 경우에 진리는 추측하여 판정될 수 없다. 흔히 (그들은) 진리를 찾아내야 한다. 그 결과로서 공직이나 지위가 진리를 지지한다고 추측할 수 없다.”

“모든 나라가 이런 식으로 잘못 인도되고 있다.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들이 흠 잡을 데가 없다고 믿는다. 사람들은 이의를 제기하는 것을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그들이 두려워하면 그들의 지도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권력과 권한이 주어진다. 모든 상황에서 이것은 사실이다.”

“보통 감히 이의를 제기할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박해를 받고 오해를 받는다.”

“거룩한 담대함은 정부와 기관들과 모든 조직체에서 진리를 찾아내고자 하는 사람들의 특징이다.” ■

2013년 7월 24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희가 내 거룩한 사랑의 계명들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 진리를 발견할 때 그 진리에 복종하여라. 이렇게 하면, 너희는 비통한 내 성심을 가라앉힌다.” ■

2013년 7월 2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다시 한 번 나는 온 인류의 마음의 회개를 갈망하는 성심,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게서 버림받은 성심인 비통한 내 성심을 너희에게 보여준다. 오늘 나는 독재의 구조를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이것은 물론 내 성심의 가장 깊은 상처인 직권(권한) 남용이다.”

“직권(권한) 남용은 권력에 만족할 줄 모르는 욕망에서 시작하며 지배의 불길에 의해 조장된다. 이런 지도자를 따르려 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정보를 받고 잘못 인도된다. 진리 안에 사는 것을 멈추기

때문에 그들의 목적은 뒤틀리고 타협된다. 머지않아 그들은 그들의 지도자의 안전에 맞추어 같은 목표로서 권력과 지배력을 가지게 된다.”

“이 설명에서 너희는 나치주의와 공산주의의 발흥을 볼 수 있다. 오늘날 많은 정부와 종교계에서 이 경향이 되풀이되고 있다. 영역이 분명하게 표시되어 있고 어떤 ‘외부’의 의견이나 조언도 거절당한다.”

“이것은 나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다. 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 일치를 원한다. 내 성심 안에는 어떠한 숨은 의도도 없다. 나는 그들 자신의 구원을 위한 노력으로 내 양떼를 불러모으며,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거룩한 사랑으로 부른다. 나는 단일 세계 정부나 단일 세계 종교를 구성하라고 인류를 부르는 것이 아니다. 이것은 확정적인 독재로 이끌 것이다.”

“이런 제안들의 조짐을 주시하여라. 오늘 너희에게 한 내 말을 기억하고 있어라.” ■

2013년 7월 25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다시 한 번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에 위안을 구하면서 이곳에 있다. 나는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하기 위해 왔다. 나는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는 않았으나 시간의 흐름이 내 성심 안에서 이 필요성을 촉진시킨다. 부디 내가 말한 것을 겸손하게 받아들여라.”

“만약 너희가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맡고 있다면 너희의 소명은 영혼을 구제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는 건전한 교리를 장려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돌보라고 맡기는 양떼의 목자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어떤 종류의 죄든 그것에 참여하거나 그것을 보호하면 안 된다. 너희는 너희 자신을 너희 양떼보다 더 높게 생각해서는 안 되며 애정을 기울여 그들을 안내하고 보살펴야 한다. 너희가 가톨릭 교회의 일부라면 (양떼에게) 성사를 쉽게 부여하여라. 본당과 학교를 유지하기 위해 너희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여라. 정말로 필요한 경우에만 본당과 학교를 폐쇄하여라. 왜냐하면 이러한 조치로 많은 이들이 상실감의 고통을 겪기 때문이다.”

“진리 안에서 가르치고 진리를 널리 알려라. 이것이 일치의 토대다.”

“절대로, 너희의 직함이 너희가 다른 이들보다 더 거룩하다거나 혹은 너희의 결정은 결코 오류가 없다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그 권리 즉, 무류성(無謬性)은 특정한 조건 아래 교황을 위한 것이다.”

“‘진리의 영’인 성령을 거부하지 마라.”

“거룩한 사랑을 통해 너희 자신의 개인의 거룩함을 위해 부지런히 노력하여라. 너희의 거룩함은 전염될 것이다.” ■

2013년 7월 26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예수님께서 둘로 조각난 성체를 보여주며 말씀하십니다

“인류의 죄 때문에 조각난 내 성심을 보아라. 내 시대에도 나는 이 똑같은 오류들 즉, 권력 남용과 진리의 타협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오늘날도 이와 다르지 않다. 선출되고 임명된 관리로서 건전한 도덕이나 십계명을 지지하지 않는 예가 어디나 있으며, 그들의 영향력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오류를 도처에 퍼뜨린다.”

“나는 더 이상 침묵을 지킬 수 없다. 나는 공개적으로 말해야겠다. 내가 너희에게 불러일으키는 거룩한 사랑을 저버리지 마라. 내가 여기서 말하려는 것을 받아들여라. 진리를 지지하지도 않고 옹호하지도 않는 많은 지도자들이 너희 주위 어디든지 있다. 그들은 그들의 권한을 남용하고 그들 대다수의 유권자들을 속이고 있다. 직위가 지도자들을 옹기 만들어준다고 믿도록 매혹되지 마라. 만일 이것이 사실이면 세상은 지금과 같은 도덕적 타락에 빠지지 않을 것이다.”

“나는 책임의 가치에 대한 주제를 내 놓는다. 너희는 그것을 활용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결과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너희의 역할이 아니거나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이것들은 사탄의 속임수다. 특히 고위직에 있는 이들이 잘못되어 있을 때 진리는 지켜지고 알려져야 한다.”

“너희의 구원의 경전인 거룩한 성경과 거룩한 사랑을 너희의 복음으로 선택하여라. 너희의 의견이나 그릇된 의도, 혹은 거짓된 지도자들의 부도덕을 너희의 복음으로 만들지 마라.”

“진리의 실재를 찾아내어라. 내가 너희를 도울 것이다.” ■

2013년 7월 26일

비통한 성심에 바치는 봉헌기도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너희는 내 성심이 권력과 권한의 남용, 그리고 진리의 타협 때문에 잃어버린 영혼들을 애통해 하는 것을 알고 있다. 나는 이제 비통한 내 성심에 바치는 봉헌기도를 너희에게 주고 싶다. 성실하게 기도하면 이 봉헌은 내 성심에 보상하고 속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사랑하올 예수님, 저는 제 마음을 다하여 비통하신 당신의 성심을 위로해 드리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매 현 순간 진리의 타협과 권한의 남용 때문에 파멸로 빠지는 영혼들을 보시나이다. 제가 매일 지는 크고 작은 십자가들을 비통하신 당신의 성심의 가시들과 상처에 대한 보상으로 받아주소서. 부디 양심을 바로잡아 주시어 사람들이 진리 안에서 살고 어떤 지위에서든 공정하게 권한을 행사하게 하소서. 아멘.” ■

2013년 7월 2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막 말하려고 하는 것은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필요가 있으며

비통한 내 성심 안에 오래 전부터 있어 왔다. 나는 진리를 밝히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너희도 또한 두려워해서는 안 된다.”

“이 거룩한 사랑의 선교사업은 이 나라와 이 대륙, 이 반구(半球)와 이 세상에서 빛나는 은총의 보석이다. 이 메시지들은 영혼들을 개인의 거룩함으로 이끈다.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영적 여정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다. 지금 말한 것 중 어떤 것도, 그리고 이곳에서 일어나는 치유와 회개 또한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보다는 오히려 이곳에서의 천상의 개입을 거저와 속임수의 바위 밑에 감추려고 시도하고 있다.”

“그 결과 많은 영혼이 길을 잃었다. 많은 사람이 계속해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이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곳에 오는 것 그리고 믿는 것을 즉결로 단념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사람들이 이곳에서 봉헌하는 것을 중지시켰을 목주기도들을 생각해 보아라.”

“이것은 세상의 마음을 거룩한 사랑으로 개심시키려는 시도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위한 에큐메니컬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선교회다. 우리는 이 권리가 어떤 인간 권위에 의해 거부될 수 없다. 우리는 그들의 지배권 때문에 강제로 어떤 권위의 감시와 지배를 받을 수 없다.”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되지만 용기를 가져야 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모든 이가 영혼들의 구원을 염려한다면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나는 권한(직권) 남용으로 행동하지 않는다. 나는 자애로운 목자로서 행동하여 한 때로 일치하라고 모든 이를 부른다. 나는 사랑으로 (사람들을) 결합한다. 나는 사람들에게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라고 명령하지 않는다. 나는 초대(권유)한다. 자애로운 목자는 그의 양떼를 존중한다. 그는 그의 권한을 불법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잊고 모든 이의 복지로 이끈다.”

“나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 이곳에서 세상에 개입해 왔다. 나는 나를 ‘친구’라고 부르는 이들에게서 반대를 받고 있다.” ■

2013년 7월 27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내가 왜 지금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는지 너희가 궁금하다면 그것은 권력남용과 진리의 타협 (절충)이 적그리스도 (Antichrist, 그리스도의 적)의 시대를 열게 하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 오류는 한때 위대했던 이 나라의 정부와 교회에도 또한 침투하고 있다. 교회 내부에 정치 (활동)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인정되지만 억제되는 않는 정치가 교회 내부에 존재한다. 이 정치 (활동)은 내 교회 안에 독특한 기운 (느낌) 즉, 누구를 믿어야 할지 모르는 분위기를 조성한다.”

“정부에서도 또한 권력이 사악한 의사 일정을 가진 이들의 수중에 빠져 들어가고 있다. 점점 더 선이 악에 의해, 곧 정의(定義)와 진상

(眞相)을 요구하는 악으로 인해 협박을 받고 있다. 표면의 흐름과는 반대되는 악의 강한 저류(底流)가 미래의 행로를 바꾸고 있다.”

“신앙의 전통에 충실한 경비원으로서 남아 있어야. 어떤 악에도 복종하게 하는 속임수에 넘어가지 마라. 너희의 자유를 지키고 너희 나라의 독자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력을 다하여라.”

“보복의 그늘 속에 사는 것은 자유가 아니다. 언제나 진리의 영 안에서 살아라.” ■

2013년 7월 28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오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진실한 마음을 가진 영혼이 이 성지에 발을 들여놓을 때 받는 분별의 인장은 내가 지극히 비통한 내 성심에 보속을 시작하기 위해 사용하는 수단이다. 거룩한 사랑에서 오류와 잘못이 드러남에 따라 진리의 빛이 영혼에 넘쳐흐르고 그의 자유의지의 동의에 따라 깊은 회개의 과정이 시작된다.”

“분별의 인장은 진리의 타협과 권한 남용을 드러내는 수단이다. 이 성지에서 제공되는 은총들은 이 죄들을 극복하려는 영혼의 결심에 힘을 더한다. 이 잘못 둘 다, 비통한 내 성심의 이 고통 둘 다 무질서한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기인한다. 나보다 죄를 더 사랑하지 않는 한 영혼은 죄를 선택하지 않는다.”

“비통한 내 성심의 요망에 따라 나는 계속해서 모든 백성과 모든 민족들을 천상의 편애를 받고 있는 이 성지로 초대한다.”

“너희가 여기에 오는 것이 금지되어 있다는 주장들은 근거가 없다. 너희의 영혼을 위해서, 나는 너희가 오기를 요구한다. 나는 너희가 이 선교사업을 둘러싸는 진리와의 모든 타협인 논쟁을 무시하기 바란다. 중간 입장 (타협)은 없다. 너희는 진리에 응답해야 할 책임이 있다.” ■

2013년 7월 29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나는 비통한 내 성심을 꿰뚫는 칼인 권한(직권) 남용에 대해서 더 자세히 설명하고 싶다. 이런 권위(권력)자는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다. 이런 권위는 그것이 취할 것이 아닌 조치를 지배하려고 시도하며 대부분의 경우 성공한다. 그의 권한을 남용하는 권위자는 인간의 법과 하느님의 법을 어긴다. 내가 이것을 말하는 것은 권한(직권) 남용은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권위자는 자기에게 속해 있는 사람들의 복지에 영향을 미치는 거짓 의견들을 받아들인다. 그는 그에게 속하지 않는 영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지도 모른다. 그는 그가 적이라고 여기는 사람들에게 부당한 형벌을 과할 수도 있다. 그는 비록 대중 앞에 한 모습을 나타내지만 마음속에는 많은 숨은 의도들을 품고 있다. 직권을 남용하는 권력자는 다른 사람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하지 않으며, 사리사욕에 따라 움직인다.”

“권력 남용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친다. 권력 남용은 한 정부나 기관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관련되는 모든 이에게 영향을 준다.”

“한 번 더 (말하지만), 권력 남용을 통해 받아들여지고 파급되는 모든 오류는 진리의 타협에서 일어나게 된다. (권력 남용과 진리의 타협에서) 하나는 다른 것을 정보원(情報源, 정보의 근원)으로 이용한다. 진리는 왜곡되고 권력의 남용을 반영하게 한다. 권력 남용은 진리를 왜곡한다. 이 모든 것은 영혼들을 파멸로 이르게 한다.”

“너희는 내가 왜 애통해 하는지 알 것이다. 나는 진리로서 세상에 오는데도 거부당한다. 너희 자신의 마음과 너희 주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진리를 일으켜 세워라. 그러면 너희는 내 고통을 덜어줄 것이다.” ■

2013년 7월 30일

“나는 사람이 된 너희 예수다.”

“비통한 내 성심의 상처들은 거룩한 사랑의 진리 안에서 살기 위한 너희의 노력으로 가라앉힐 수 있다. 전쟁과 테러리즘, 도덕적 타락의 결과를 가져오는 것은 언제나 거짓과 그 동반자인 권한(직권) 남용이다. 이 모든 것 가운데서 자유의지, 쾌락, 부, 명성, 권력의 거짓 신들이 일어난다. 이것들이 생존의 목적이 될 때 이 모든 거짓 신들은 사탄으로부터 온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는 영원의 개념을 확실히 이해하지 못한다. 너희가 지상에서 소중히 여기는 것들은 모두 지나가 버린다. 너희를 따라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거룩한 사랑이다. 영원은 결코 끝나지 않는다.”

“비통한 내 성심은 내 간청에 귀를 기울이지 않음으로써 그들 자신의 파멸을 선택하는 영혼들을 본다. 매 현 순간 진리의 빛인 거룩한 사랑의 빛을 선택하여라.” ■



영적 여정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 - 거룩한 사랑 - 구원

제 9 부

‘영적 여정 하기’ 시리즈의 제9 부를 시작하고 나머지 부분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천상에서 세상에 주신 메시지들을 탐구할 것입니다. **2000년 10월 3일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들은 “완전하고 반박의 여지가 없는 하나 된 성심의 계시에서 이 선교회[그리고 이 세상]에 내려질 가장 위대한 은총입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의 이 메시지들 안에서 우리는 모두 개인의 거룩함의 완덕에 이르는 곧게 뻗은 좁은 길을 따라가기에 필요한 은총들을 받습니다. 그리하여 구원과 성화를 달성하고 영원한 생명과 하늘 나라 (천상에서 부르는 새 예루살렘)에 도달하기 위해 필요한 은총들을 받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2013년 4월 27일** 메시지에서 이를 확인하셨습니다. 복되신 어머니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성심과 그안에 심방들에 대한 계시, 이 선교사업과 이 성지에 수반하는 은총들은 모두 내 자녀들인 너희를 더 깊은 개인의 거룩함으로 이끌기 위해 주어진다.”

2013년 5월 26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의 의의와 우리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거쳐가는 거룩한 사랑의 영적 여정을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지를 설명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 된 성심의 계시를 묘사하는 이 성화는 티 없는 마리아 성심과 거룩한 삼위일체의 결합을 나타내는 것이다. 거룩함의 완성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치는 영적 여정을 통해 가장 쉽게 이루어진다. 이 심방들은 완덕 그 자체이신 내 아버지의 뜻과의 일치치를 위한 지침이다. 각 가정마다 이 영적 여정을 상기시키기 위해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완전한 성화를 전사해 놓아야 한다. 일치치를 나타내는 이 상본은 이 영적 여정을 진지하게 추구하는 가정에 일치치를 가져온다.”

2012년 11월 29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가

세상에서 나의 승리가 되기를 청하러 왔다. 거룩한 사랑이 됨으로써 나의 승리가 되어라.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거치는 여정을 통해 거룩한 사랑이 되어라. 그렇게 하면 너희는 새 예루살렘에서 살 수 있다.”

“새 예루살렘은 이 신성한 심방들을 거치는 여정을 통해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사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존재한다. 실로, 이 여정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도로(道路) 지도다.”

2000년 10월 3일 신성한 사랑과의 대화에서 예수님께서 이 도로지도 혹은 하나 되신 성심에 들어가는 영혼의 여정을 설명하셨습니다. “하나 된 성심 안으로 들어가는 여정을 가장 단순한 말로 너희에게 설명하겠다. 이 비유에서 하나 된 성심은 하나의 거대한 집으로 표현된다. 이 집 (첫째 심방)에 들어가고 싶은 영혼은 열쇠를 사용해야 한다. 이 열쇠는 영혼의 자유지를 나타낸다. 그 영혼이 이 열쇠를 사용할 때 (즉 사랑의 부름에 내맡길 때), 그는 내 어머니의 티없으신 성심이며 거룩한 사랑인 내 성심의 대기실로 들어간다. 일단 이 ‘현관 객실’에 들어오면, 영혼은 그 집안의 나머지 (즉 내 성심의 심방인 신성한 사랑)에 호기심이 있다.”

“그는 그의 앞에 다른 문을 우연히 찾아낸다. 또다시 그는 열쇠를 써야 하며 더 깊이 나에게, 이번에는 거룩함에 내맡겨야 한다. 이 집안에서 마침내 영혼은 다른 방들 - 내 성심의 심방들을 살펴보고 싶어한다.”

“각 심방은 비공개로 여전히 격리되어 있다. 영혼이 들어가는 입구를 찾고 있는 각 방 (혹은 심방) 은 그 자신의 의지로 더 깊은 순종 · 의뢰를 요구한다. 만일 영혼이 진실되고 끈기있게 노력하면, 그는 가장 멀리 격리된 방, 곧 내 성심의 다섯째 심방에 도달할 것이다. 여기에 순수한 평화와 사랑과 기쁨이 있다. 모든 심방 중에 가장 작은 이 방에서, 영혼은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완전한 일치치를 발견한다.”

“이런 영혼은 세상에 드러나거나 알려지는 것을 바라지 않으면서 이 작은 심방에 자리를

잡는다. 그의 유일한 즐거움은 그 심방에 있는 것이다. 그는 언제나 지금 이 순간에 있다. 시간의 여유를 가지고 내가 너에게 보여준 이 집을 명상하여라.”

영혼들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한 이 영적 여정에 대한 이해뿐 아니라 이 여정에 전적으로 들어서는 것이 천상의 요구입니다. 이것이 구원과 성화에 이르는 가장 확실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하기를 **2000년 2월 17일** 자 메시지에서 장려하십니다.

“너희 구원이 거룩한 사랑에 달려 있는 것처럼, 너희의 거룩함의 완성은 거룩한 사랑에 내맡김에 달려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도록 하기 위해 왔다. 너희가 사랑에 완벽하면 완벽할수록, 너희는 내 아버지의 신성한 뜻과 더욱더 일치한다.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하느님의 뜻과의 일치는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완덕이다. 나는 모든 마음이 신성한 사랑의 감실이 되기를 바란다.”

“거룩한 사랑 밖에서는 아무도 좁은 문으로 통과할 수 없다. 하느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내 아버지의 왕국에서 나와 함께 머물 수 있겠느냐? 그래서 너희가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결정해야 할 선택을 이해하도록 도와주기 위해 왔다. 내 어머니를 통하여, 너희 구원에 거룩한 사랑의 칭호를 주었다. 너희에게 주는 내 말을 통하여 너희의 성덕(聖德 sanctity)은 거룩한 사랑의 완전한 실천이며 신성한 사랑이라는 것을 알도록 너희를 돕는다.”

“나는 모든 영혼이 신성한 사랑의 심방들을 통하여 성심들중의 성심인 내 성심을 본받도록 초대한다. 영혼들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죽고, 묻힌 내 신성한 성심의 내적 지성소를 영혼들이 이해하기를 얼마나 원하는지!”

2013년 2월 7일의 메시지에서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은 예수님의 이 말씀들의 진리를 강조하십니다. 성인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는 내 말이 여러분의 영혼에 울려 퍼지게 하기 바랍니다. 성경에 의하면 믿음과 희망과 사랑, 이 세 가지는 계속되며, 그 가운데에서 가장 위대한 것은 사랑입니다. * 거룩한 사랑은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진리는 내세에 이르기까지 계속 존재할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십시오. 진리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이며, 앞으로도 그러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살지 않는 이들은 죄를 이겨낼 수 없습니다. 어떤 것이든지 진리에 대한 타협은 마음속에 있는 새 예루살렘의 기초를 깨뜨리고 틈이 생기게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이가 당신과 하나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이 메시지들과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이 이 세대에 전해진 이유입니다.”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Margaret Mary Alacoque) 성녀는 그 성녀의 축일인 **2011년 10월 16일**에 토마스 성인이 설명했던 것에 대해 더 상세히 말씀하셨습니다.

“태초부터 하느님 아버지께서는 이곳 성지에서 현 세대에게 알리기 위해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의 계시를 하느님의 뜻 안에 품고 계셨습니다. 성심방들은 자기만을 위한 사랑에 빠져 있는 세상에서 필사적으로 필요로 하는 사람들의 해방과 회개와 정화를 위한 것입니다.”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 밖에서는 아무도 거룩한 사랑 안에서 살 수 없습니다. 각 심방은 거룩한 완덕으로 나아가는 진전단계입니다. 모든 심방은 사람들의 마음이 더 깊은 자기 인식을 하게 함으로써 그리고 거룩한 사랑에 반대하는 모든 것을 깨닫게 함으로써 하느님의 눈 앞에서 영혼을 정화시킵니다. 우리 어머니의 성심인 거룩한 사랑의 불꽃은 각 심방을 통해서 불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을 소모하고 정화하는 사랑의 성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진심으로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이들은 이 여정이 단지 그들 자신과 하느님 사이의 여정일 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는 모든 사람은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으로 이동하며, 거기에서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정화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어머니께서는 현재 계속되고 있는 모든 회개에 관여하시기 때문입니다.”

토마스 성인은 **2013년 3월 23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이 요점을 확인하셨습니다.

“나는 영혼들이 이 진리를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느님의 기쁨입니다. 영적인 완덕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거룩한 사랑 안에서의 완덕을 통한 길입니다. 거룩한 사랑은 모든 계명과 모든 덕을 포함합니다. 영적 여정에서 거룩함과 완덕으로 가는 다른 길은 없습니다.”

“이것이 하나 되신 성심을 통과하는 여정의 첫째 심방이 거룩한 사랑에 주어진 이유입니다. 곧 우리 어머니의 성심인 사랑의 불꽃을 통해 죄악이 정화되는 것입니다.”

“영혼들은 거룩한 사랑과 하나 되도록 요람에서부터, 실로 잉태부터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것이 성화의 모범이기 때문입니다. 이 영적 완덕은 모든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갈망의 근원입니다.”

2002년 1월 14일에 토마스 아퀴나스 성인께서 세상이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을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토마스 성인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예수님과 마리아님의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을 세상에 소개하기 위하여 왔습니다. 첫째 심방은 티 없으신 마리아님의 성심, 즉 거룩한 사랑입니다. 이는 하느님의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셨을 때, 천국을 하나의 귀중한 보석으로 설명하셨습니다. 그 보석은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할 만큼 귀중한 어떤 보석보다 더 가치가 있습니다. 실로 천국 자체인 그 보석은 거룩한 사랑입니다. 그렇습니다. 거룩한 사랑은 그만큼 귀중하고 그만큼 중요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사랑에 ‘예’ 하고 수락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지 못합니다.”

“거룩한 사랑은 사랑에 대한 두 개의 큰 법률 즉,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자신처럼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이르기 싶다면 이 계명을 따라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토마스 성인께서 우리는 천국에 이르기 위해 거룩한 사랑을 선택 (‘예’라고 대답) 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탄이 우리를 거룩한 사랑의 선택을 하지 못하게 유혹하려고 하기 때문에 쉬운 과정이 아닙니다. **2012년 11월 26일** 목주기도 모임 중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거룩한 사랑을 선택하도록 하기 위해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에 들어오기로 선택하고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인 첫째 심방 안으로 발을 들여놓을 때 너희는 순수한 사랑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다. 이 순수한 사랑 안에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거룩한 사랑에 상반되는 모든 것을 볼 것이며 더 완전하게 사랑할 수 있는 은총을 받을 것이다.” [이것은 회개를 위한 은총입니다.]

“이 조처를 취하여라. 내 어머니의 성심을 선택하여라.”

2013년 2월 8일 다른 목주기도 모임에서 예수님께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내 형제자매들아, 너희가 우리의 하나 된 성심의 심방들을 통과하는 영적 여정을 시작하기로 선택하고 결정할 때 너희는 필요한 모든 은총과 도움을 받을 것이다. 너희가 반복해서 첫째 심방에 들어간다고 할지라도 너희는 모든 도움을 받을 것이다.”

2007년 8월 12일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천국은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에 대한 메시지들을 통해 첫째 심방에 들어감이 무시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나는 나팔 소리를 내며 전반적으로 알리면서 첫째 심방으로 전 인류를 초대하는 이 부름에 특별히 주의를 환기한다. 오해하지 마라. 첫째 심방은 회피될 수 없다. 첫째 심방은 다른 모든 심방의 기초이며 토대다. 우선 내 어머니 성심의 불꽃 속에서 정화되지 않고는 아무도 영적으로 전진할 수 없다.”

그리고 다시 **2012년 12월 6일**에 예수님께서 주신 메시지에서,

“이 여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는 내 어머니의 티 없으신 성심인 첫째 심방이다. 이 심방에서 잘못과 죄가 드러나며 어머니 성심의 정화의 불꽃으로 태워진다. 이 노력 없이는 영혼은 심방들을 통과해 나아가거나 거룩함을 증진시킬 수 없다. 이 완덕의 불꽃 속으로 너희의 마음을 잠기게 함으로써 이 여정을 시작하는 열망을 위해 기도하여라.” (거룩한 사랑의 불꽃)

2013년 2월 11일 루르드의 성모님 축일에 성모님께서 우리가 이 영적 여정을 시작할 때 기도의 중요성을 우리에게 일깨워 주셨습니다. 성모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아, 오늘 나는 너희가

기도의 영 안에서 일치해 있기를 바란다.
신앙의 전통 안에서 일치하고 모든 상황에서
내 보호를 구하는 법을 배워라.”

“내 티 없는 성심은 새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라는 사실을 기억해 두어라. 내 성심의
정화의 불꽃으로 먼저 그들의 죄악이
정화되지 않고서는 아무도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수 없다.”

이제, 우리를 첫째 심방으로 들어가게 하기
위해 천상은 두 개의 도움이 되는 기도문을
주셨습니다.

**(1) 1995년 4월 16일에 성모님께서 주신
‘거룩한 사랑의 불꽃에 바치는 봉헌기도’:**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시여, 겸손되어
청하오니 제 마음을 온 인류의 영적
피신처이신 거룩한 사랑의 불꽃 속으로
인도해 주소서. 저의 잘못과 결점을 헤아리지
마시고 저의 모든 죄악을 이 정화의 불꽃으로
태워 주소서.”

“사랑하옵 어머니, 저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당신께 내맡기오니, 거룩한 사랑을
통해서 제가 지금 이 순간에 성화 되도록
도와 주소서. 당신의 크신 뜻 대로 저를
이용하소서. 제가 하느님의 위대하신 영광과
성모님의 승리의 다스림을 위해 이 세상에서
당신의 도구가 되게 하소서. 아멘.”

그리고 (2)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의 열쇠인
‘신앙의 수호자이신 마리아에게 바치는 기도’:

“신앙의 수호자이시며 거룩한 사랑의
피신처이신 마리아님, 저를 도우러
오소서.” (이 ‘영적 여정’ 시리즈의 제8
부에서 실린 “성심방들을 통한 거룩함에
이르는 설계도에서 마음의 회개의 역할”과
2000년 10월 16일에 이 기도문에 관한
예수님의 메시지를 참조하십시오.) 일 년
전 신성한 성심의 성녀, 마르가리타 마리아
알라코크 성녀의 축일인 **1999년 10월 16
일**에 예수님께서 하느님의 뜻에 자신의
의지를 내맡김의 중요성을 논의하신 후 (이
시리즈의 제7부 참조) 티 없으신 마리아님의
성심인 첫째 심방에서 시작하여 예수님의
신성한 성심의 심방들의 내막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영혼이 열어야 할 첫째 문은 아마 가장
어려운 것이다. 내 어머니 성심의 불꽃을
통하여 그 영혼은 그의 잘못과 결점을
인정한다. 그는 자유의지의 충동으로 그의

악점을 극복하기로, 곧 사악을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태워버리기를 결심한다. 더구나,
신성한 사랑으로 가는 첫째 관문은 거룩한
사랑이다. 그것은 정화(속죄)의 단계다. 그
영혼은 그의 앞에 보이는 길에 매우 전념하여
이 문을 열 수도 있으나, 사탄의 유혹에
굴복하기 때문에 다시 첫째 문 밖에 있음을
깨달을 수 있다. 그는 몇 번이고 되풀이 하여
거룩한 사랑에 다시 전념해야 할런지도
모른다.”

“마침내, 그는 목은 결점들에 더 적게 유혹을
받게 될 것이다. 그는 그것들을 알아보고 피할
것이다. 이제 그는 신성한 사랑으로 가는
첫째 문에 접근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자유 의지로 잘못과 결점이 일종의
지상의 연옥인 거룩한 사랑의 불꽃으로
깨끗이 되기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택한다면, 우리는 **첫째 심방**을
거치는 데 필요한 모든 은총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한 하느님의 뜻입니다.

1999년 11월 10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예수님께서 신성한 예수성심의 복잡한
사항을 더 설명하십니다.

“나는 내 성심의 전부를 너희에게 드러내고
싶다. 내 성심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신성한
뜻이다. 내 성심은 신성한 사랑과 자비다.
나는 너희에게 내 성심의 여러 심방들을
밝혀 왔다. 그러나, 오늘 나는 내 첫째 심방
즉, 내 어머니의 성심이신 거룩한 사랑의
심방은 내가 가장 큰 나의 은총들을 쏟아
넣는 심방이라는 것을 너희와 함께 나누기
위해 왔다. 너희는 신성한 성심의 가장
은밀한 심방에서 영혼들이 특선된 은총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며 이를 궁금해할지도
모른다. 그들은 참으로 극소수를 위해 예비된
특선 은총들이다. 그러나 가장 많은 은총들이
첫째 심방으로부터 흘러나온다. 이는
여기에서 영혼이 그의 회개에 응하고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해야 하기 때문이다.”

“나는 내 자비와 사랑을 통하여 각 영혼이
‘예’라고 대답할 모든 기회를 준다.”

“나의 가장 다정한 자비심은 내게 마음이
끌리는 모든 영혼을 환영할 준비가 되어
있다. 내 성심의 다른 심방들에서 영혼은
개인의 거룩함과 완덕, 성화를 이룬다.
그러나 첫째 심방은 구원이다.”

이 첫째 심방은 구원이라고 불립니다. 거룩한
사랑은 복되신 어머니께서 그분의 티 없으신

성심이 완벽한 예로 판명하셨던 우리의
구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5일**에 주신 메시지에서 성모님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이 시리즈의 제8부참조).

“나는 너희들을 유일한 영원한 피신처로
초대하기 위하여 왔다. 이 피난처는 너희의
구원이다. 아무도 거룩한 사랑인 내 성심의
관문을 통과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
한다. 하느님을 만유 위에 사랑하고 이웃을
그 자신처럼 사랑하지 않을 사람이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따라서 우리는 티 없으신 마리아의 성심에서
하느님과 하느님의 뜻과 일치하는 (하나
되신 성심의 다섯째와 여섯째 심방의)
목표를 향하는 개인의 거룩함을 위한
여정에서 첫 단계 혹은 걸음을 옮깁니다.

2000년 5월 20일 메시지에서 이 걸음 혹은
단계 들이 파도바의 안토니오 성인에 따라
자세히 서술되었습니다.

“간단히 말해 여기에 구원, 거룩함, 완덕,
그리고 성덕에 이르는 길이 있습니다”

(여기에 기재된 것은 단지 하나 되신 성심의
첫째 심방에 관련되는 메시지의 일부일
뿐입니다.)

1단계: 구원.

“이것은 사랑에 관한 두 개의 큰 계명인
거룩한 사랑에 내맡김입니다.”

“이 내맡김에서 영혼은 마리아님의 티
없으신 성심으로 옮겨집니다. 성모 성심은
모든 인류의 영적 피신처이고 예수 성심인 새
예루살렘으로가는 관문입니다.”

“이 내 맡김에서 영혼은 그의 가장 큰 죄와
잘못들을 이해하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영혼은 지금 이
순간의 힘과 중요성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이 시리즈의 다음 편(Part)에서 티 없으신
마리아 성심이며 거룩한 사랑인 첫째 심방에
관한 하나 되신 성심의 계시 메시지들의 제2
부(Section 2)가 계속될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들이 신성한 사랑과 거룩함인 하나 되신
성심의 둘째 심방으로 진척하기 위해서
더 깊이 거룩한 사랑에 내맡기고 (회개)
가장 현저하게 눈에 띄는 그들의 잘못을
극복하면서 천상이 내리시는 정보를 살피게
됩니다. ■

Holy Love Ministries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

37137 Butternut Ridge Road
North Ridgeville, OH 44039

성 토마스 아퀴나스 교육 센터: 440-327-8006
 선교회 팩스: 440-327-8016
 메시지 신청: 440-327-5822
 기도 신청: 440-327-8039
 기도 신청 이-메일: prayers@holylove.org
 선교회 연락: mamshl@holylove.org
 자원 봉사자: volunteers@holylove.org
 체험담 제출: testimonies@holylove.org
 웹사이트: www.holylove.org
 한국어 옮긴 이: 거룩한 사랑의 종 한인 선교회
 Korean Missionary Servants of Holy Love (KMSHL)

거룩한 사랑의 선교회는 그리스도 교회의 일치를 지향하는 보편된 평신도 사도 모임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의 일치를 재건하려는 열망은 그리스도의 은총이고 성령의 부르심이며, 이에 합당하게 응답하기 위해서는 공동 기도가 요구된다고 가톨릭 교회 교리서 821 조항은 기술합니다: "마음의 회개와 거룩한 생활은 그리스도인들의 일치를 위한 사적 공적 기도와 더불어 일치 운동의 혼으로 여겨야 하며, 마땅히 영적 일치 운동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성모님, 주님, 여러 성인 성녀들이 이 마라나타 성지에 발현하십니다. 메시지들은 영혼을 거룩하고 신성한 사랑 즉 하나 되신 성심의 심방들을 통해서 개인 성화를 성취하도록 인도해 줍니다.



자원 봉사, 의견과 제안

자원 봉사자 - 항상 필요합니다.
봉사 희망 연락처: volunteers@holylove.org
뉴스 레터 신청: 우편물 수취인 명부를 위해 성함과 주소를 c/o Newsletter Editor에게 또는 이-메일로 등록하십시오.
newslettereditor@holylove.org

의견과 제안을 환영합니다. newslettereditor@holylove.org

행사나 활동에 대한 정보: www.holylove.org
www.holylovekorean.org

목 차	
지극히 거룩한 묵주기도의 힘	3 페이지
천상의 초대	4 페이지
하나 되신 성심의 축일	12 페이지
비통하신 예수 성심에 대한 신심	18 페이지
비통한 성심에 관한 메시지들	20 페이지
영적 여정의 시리즈 (제9부)	25 페이지

하나 되신 성심의 완전한 축복을
 여러분께 건네어 드립니다 -
 성부와 성자와 성령과 티 없으신 마리아님